

우리나라 醫學情報 索引事業

가톨릭대학 의학도서관

金 好 培

서울대학교 의학도서관

尹 鳳 子

Indexing for Medical Literatures in Korea

Kim Ho Bae

Medical Library, Catholic University

Yoon Bong Ja

Medical Library, Seoul National University

서 론

의학의 발전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은 여러 측면에서 검토될 수 있으나 의학지식의 축적, 보급 및 활용을 넓힐 수 있는 측면에서 볼 때, 발표된 의학연구논문의 수로서 어느 정도 가능하다. 즉 의학논문의 발표가 활발하다는 사실은 그만큼 의학지식이 축적되어 가는것을 의미함으로써 전체 의학의 발전을 의미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과학은 미시적인 차원에서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것이지 결코 혁명적으로 발전하는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이도 있다. 현대는 의학분야에서 뿐만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정보의 폭발, 정보의 홍수등의 표현을 통하여 정보의 검색, 탐색, 또는 관리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의학관계잡지가 양적으로 발전하였고 질적으로도 향상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은 외국문헌에 비해 엄청나게 빈약한 상태에서 의학정보의 수요자인 의사가 자기의 정보원(情報源)으로 국내의 학잡지를 얼마나 이용하고 있으며, 영어 일어등 기타 외국어로 된 의학잡지에 비해 이용율은 어떤지를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다. 그책임은 의학잡지 내용의 질적문제도

있겠으나 Combination Channel 즉 색인등 국내문헌 2차자료의 존재가 문제 될 수 있다고 밝힌이도 있다. 어떠한 학자나 연구인이 자기분야에 관련된 정보를 충분히 찾아서 이용할 때 비로소 그 연구활동이 올바른 궤도에 오르게 될 것이다. 이런 이유로 2차자료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탐색수단으로 2차자료가 등장하였다.

2차자료는 1차자료 즉 original information을 여러 가지 형식으로 재편성하거나, 재생 혹은 축적해 놓은 보조자료로서 1차자료의 존재와 소재를 밝혀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2차자료는 1차자료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데 필수보조자료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다. 특히 과학분야연구에서는 2차자료를 통하여 세계각국 학자들간에 이루어지는 연구활동을 서로 알게되고 따라서 연구의 중복을 피하는데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과학기술 특히 의학발전과 더불어 정보자료의 전달수단을 보다 빠른 방법으로 이끌어야 한다. 즉 학문의 진보가 빠르면 빠를수록 정보전달수단도 빨라야 한다. 그 이유는 학문의 빠른 진보로 인하여 정보의 유효수명이 짧아 가고 있기 때문에 빨리 입수하고 빨리 처리하여 그 효과 있는 기간을 포착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 의학정보에 관한 2차자료의 역할이 아직

미흡하여 이를 보완하여야 하며 정보탐색을 위한 모든 방법이나 기술이 재검토되고 의학발전을 위한 필요한 도구로서의 그 중요성이 재인식되어야 한다.

색 인

2차자료의 일종인 색인이란 근본적으로 정보의 위치를 지시하여 찾아주는 도구인 것이다. 오늘날 현대적인 개념의 색인이란 특정한 정보의 위치를 지시해 줌으로써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로서의 지시의 기능과 방대한 정보원으로부터 가장 유사한 기능을 갖는 등 모두 이용자의 정보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같은 색인을 작성할 때는 技術的이고 語意的인 잡음이 가능한한 배제되어 문헌주제의 정확한 표현이 가능해야 하며, 이용자가 情報源에 대해 갖고 있는 불확실성을 최소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즉 이용자의 정보요구가 정확히 표현되어 이용자와 정보 system간의 상호작용에 오류가 없으리라고 전제한다면 그것은 매우 일상적인 색인인 것이다.

색인작업은 문헌이 포함하고 있는 개념들을 색인어휘 속의 색인어로 변환시키는 것이다. 색인 system은 입력된 문헌을 색인하여 색인을 出力物로 생산되며 색인과정에는 색인작성자, 색인언어, 색인어휘 및 색인정책이 중요한 변수로 존재한다. 색인과정은 주제분석, 주요개념 추출단계, code화 단계, 색인작성단계로 나누어진다.

색인어는 그 유형에 따라 크게는 주제색인과 비주제색인으로 구분된다. 주제색인은 정보자료의 주제를 나타내는 요소를 색인어로 선택하는 색인을 말하며, 비주제색인은 저자명, 표제, 기관명, 출판연도, 프로젝트명, 보고서번호 등 주제와는 직접적으로 관계없는 요소를 색인어로 선택하는 색인이다. 따라서 정보자료의 내용을 직접 표현해주는 주제색인이 “무엇에 관한” 정보자료를 찾는 데 도움을 주며 일반적으로 정보검색에서의 색인은 주제색인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1. 주제색인 기법

1) 용어추출색인과 용어부여색인

색인어로 선택되는 용어의 출처에 따라 용어추출색인과 용어부여색인으로 구분된다. 추출색인은 정보자료의

표제나 초록, 또는 본문에 나타난 형태 그대로의 용어를 색인어로 선택하는 것이므로 자연언어색인이라고도 한다. 부여색인의 경우 색인자는 주로 주제명표나 디소오리스(동의어사전 또는 검색어표)와 같은 어휘집을 참조하여 주요개념을 해당되는 색인어로 변환시켜 주게되며 이때 용어의 통제가 이루어지므로 이 기법은 또한 통제언어색인에 해당된다.

2) 자연언어색인과 통제언어색인

색인어 선택시 용어의 통제가 가해졌는가의 여부에 따라 자연언어색인과 통제언어색인으로 구분된다. 이 색인들은 용어추출색인과 용어부여색인으로 설명하였다. 다만 자연언어색인은 같은 개념이 여러개의 다른 용어로 표현될 가능성이 있어 같은 어간을 갖는 용어라 할지라도 어형의 조절이 불가능하며 검색시 특정한 개념을 표현하는 모든 용어를 탐색어로 사용하지 않은 한 재현율과 정확율의 저하가 일어난다. 통제언어색인은 첫째, 특정한 개념은 항상 같은 용어에 의해 색인이 가능하다. 둘째, 자연언어에 비해 용어의 특정성이 떨어진다. 셋째, 색인어휘에 속달되어야 효과적인 색인과 검색이 가능하다. MEDLINE 등 현재 가동되고 있는 대규모 정보검색 System은 대부분 자연언어색인과 통제언어색인을 병행하여 사용하고 있다. 그리하여 가능한한 정보요구와 관련된 모든 정보자료를 검색해 내도록 하고 있다.

3) 전조합색인과 후조합색인

정보자료의 주제를 구성하는 개념의 조합이 색인작업시 일어나는 것을 전조합색인, 그리고 색인시 색인대상이 되는 각 개념에 색인어를 개별적으로 부여한 후 검색시 색인어의 조합에 의해 주제를 표현할 때 후조합색인이라고 한다. 전조합색인은 열거형분류와 주제명색인이 여기에 해당된다. 한편 컴퓨터검색 System에서는 거의가 Keyword를 사용한 후조합색인법을 채택하고 있다.

4) 수작업색인과 자동색인

이 구분은 색인작업의 주체에 의한 것이다. 수작업색인은 색인자가 정보자료의 내용을 분석하여 중요한 개념을 적절한 색인어로 표현해주는 것으로 색인자는 자신의 전문지식에 기초하여 임의로 색인어를 부여하거나 아니면 대개 통제어휘집을 참고하여 미리 통제된 용어들 가운데서 가장 적당한 색인어를 선택하게 된다. 그러나 외국에서는 1950년대말 이후 엄청난 양의 정보자료를 색인할

전문인력의 확보가 어려워지고 색인작업에 소요되는 시간적인 지연으로 인해 정보의 신속한 검색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컴퓨터를 사용한 자동색인에 관한 연구가 시작하여 오늘날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2. 의학정보색인 현황

현재 발간되고 있는 각종 정기간행물의 색인방식을 구별하여 만들어진 색인 System으로는 문헌의 주제를 색인하기 위해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는 계층적 분류, 분석합성분류, 주제명색인, Keyword색인 그리고 용어열색인의 다섯가지 종류로 대략 나눌 수 있다.

1) 계층적 분류

분류대상이 되는 큰주제는 점차 특정한 주제개념으로 세분되어 결국 개념들은 나무구조와 같이 계층을 이루게 된다. 이것은 도서관에서 도서의 내용을 색인하기 위해 전통적으로 사용해오던 색인방식이다.

2) 분석합성분류

이 분류법은 전체주제를 구성하는 개념들을 특성에 따라 몇개의 기본적인 범주로 나누어 작성한 분류표를 기준으로하고, 각 범주에 속하는 기본 분류항목들을 합성하여 복합주제를 색인하도록 하였으므로 분석합성형분류라고 한다.

3) 주제명색인

주제명색인은 통제어휘를 사용한 색인으로 도서관의 주제목록과 색인초록잡지의 주제색인으로 채택되고 있다. 주제 목록에서는 일반적인 주제명표를 통제어휘로 사용하여 단행본을 색인해 주고 있으나 색인초록잡지에서는 주로 잡지의 논문기사나 보고서등에 대한 색인을 하고 있다.

4) Keyword색인

문헌의 주제개념을 나타내는 Keyword를 문헌의 표제, 초록 또는 본문에서 추출하거나 따로 부여하여 색인하는 것으로 검색시 이 Keyword를 조합하여 공통되는 문헌을 검색한다. Computer를 이용하는 정보검색 System은 거의가 Keyword 색인법을 채택하고 있다.

5) 용어열색인

문헌의 주요개념을 나타내는 Keyword들을 추출하여 색인표목속에 이 Keyword들을 조합해 주는 전조합색인의 일종이며 KWIC(Keyword in Context)색인류

가 이에 해당되는데 이는 표제를 구성하는 주요어를 색인으로 채택하고 이 주요어를 포함하는 표제 전체를 출력시켜줌으로써 각 주요어가 어떤 문맥에서 사용되었는가를 표출하고 있다.

이상에서 색인의 종류 및 색인언어의 유형을 고찰하여 보았다. 외국의 의학색인들은 어떤 색인법을 사용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외국 의학정보색인

1. Index Medicus

Index Medicus는 많은 다른 색인지와 초록지들의 발전과 제작에 있어 발판구실을 하였다. 미국국립의학도서관에서 제작되는 Index Medicus는 모든 의학도서관에서 볼 수 있는 필수적 검색도구이다. 이는 1879년에 창간되어 지금까지 중간단계의 체제를 여러번 바꾸면서 출판하여 발전시켜왔다. Index Medicus는 월간판과 그 해의 말까지 1년간을 누적한 누적판으로 출판되며, 매호에는 전세계에서 발행하는 의학관련잡지중 약 2800여종을 선정하여 그 달과 그 해에 발표된 논문을 실고 있다. 우리나라의 의학잡지는 Yonsei Medical Journal만이 수록되어 있다. 매년 부록으로 Index Medicus에 수록된 잡지목록인 The List of Journals Indexed in Index Medicus가 발행되어 요구하는 잡지가 색인수록되었지의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게 하였다. 이 Index Medicus는 모든 의학관계 주제를 A부터 Z까지의 자모순으로 색인하고 있으며, 현재 14권으로 출판되는 연간 누적판에서도 같은 방법을 적용하고 있다. 검색을 위한 모든 색인들은 공통적으로 하나의 Thesaurus를 갖는다, 이것은 훌륭하게 고안된 통제된 언어로 구성된 "Medical Subject Heading" (MeSH)로서 1년에 한번씩 출판되며 새로운 개념, 기술, 기구와 약을 포함하여 추가, 삭제, 발전시킨다. 이 MeSH에서 선택한 주제명 중에서 논문의 가장 중요한 개념을 나타내는 주제명만을 색인 엔트리로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Index Medicus에서 하나의 인용사항(즉 논문이나 단행본의 장)은 하나 이상의 주제명 아래 인쇄된다. Index Medicus에서 자료를 검색하기 전에 MeSH를 참고하는 것은 찾으려는 용어가 표목으로 채택되어 있는가의 여

부를 알고 또한 상호참조로 안내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각각의 MeSH의 용어는 하나 또는 여러개의 코드를 수반하며 이 코드는 Categories and Subcategories로 시작되며, A에서 N까지의 14개와 Z를 포함한다면 15가지의 분류항목으로 되어있다. 그리고 그다음에 주표목들의 계층적 나무구조(Hierarchical Tree Structure)가 실려 있다.

Index Medicus의 주제 section내에서 각각의 주표목들 아래 수록되며, 같은 주표목내에서는 부표목에 따라 구분하여 수록된다. 부표목의 목록은 MeSH의 앞부분에 실려있고 주표목에서와 같이 각각의 부표목에도 Category번호를 주고있다. 이는 용어들을 상응하는 분류구분에만 활용하도록 제한해 주는 것이다. 이 부표목의 이용은 대부분의 경우 검색범위를 줄이고 검색의 핵심으로 바로 이끌어주기 위한 것이다.

각각 월간호와 연간 누적색인에도 마찬가지로 "Bibliography of Medical Reviews"란 종설논문만을 모아 놓은 별도의 Section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 Index Medicus의 시간적 지연은 역시 비판적이며, 출판된 논문이 색인지에 수록되는 사이에 시간적 지연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출판되는 논문들은 적어도 3개월이 지연되며 영국의 경우는 시간이 더 지연되어 약 6개월 정도로 보는것이 합리적인 계산일 것이다. Index Medicus의 기계화된 정보검색의 개념은 Computer이용이 시작된 이래 꾸준히 연구되어 왔다. 그 결과 MEDLARS(Medical Literature Analysis and Retrieval System)는 이미 1963년에 가능하게 되었다.

2. Excerpta Medica

Excerpta Medica는 초록지로서 여러관점에서 Index Medicus에 필적할 수 있는 2차자료이다. Excerpta Medica는 Amsterdam에서 1947년에 창간된 것으로 "Index Medicus"와는 다른 방법으로 의학의 분야를 포괄하고 있다. 약 4200종의 의학관련잡지를 대상으로 자체의 주제분류로 되어있고 각각의 주제를 Section별로 나누어 각각 연간 10호내지 12호로 출판하고 있다. 그리고 각호는 목차와 저자색인과 주제색인을 포함하고 있다. 자모순으로 몇개의 Section을 소개하면

마취학(Anesthesiology; Section 24), 관절염과 류마티즘(Arthritis and Rheumatism; Section 10), 외과학(Surgery; Section 9)등이다. Section 1은 해부학, 태생학과 조직학의 주제로 되어있다. 새로운 Section들이 필요에 따라 추가되기도 하고 어떤것은 폐간되기도 한다. 즉 독물학은 1982년까지 약리학(Pharmacology; Section 30)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Excerpta Medica구독자와 이 분야에 종사하는 과학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후 약물과 관계되는 산업중독증과 화학물질중독증, 오염물질, 첨가물 그리고 폐기물과 실험실의 위험물과 같은 영역들이 포함되어 독립된 Section의 독물학(Toxicology; Section 52)이 1983년에 창간되었다. 그러나 Excerpta Medica의 시간적 지연은 더욱더 나쁘다. 매우 많은 논문들이 처음 출판한 때로부터 여기에 수록될 때 까지는 대개의 경우 1년 이상이 걸린다. 예를들어 1987년 늦은 가을에 출판된 논문은 1989년에나 수록될 수도 있다. 여기에는 당연한 이유가 있다. 수 많은 잡지(4200종 이상)를 포함시키려는 Excerpta Medica의 한층 야심적인 규모때문이며, 인쇄물인 초록지에 수록한 모든 논문들이 요약되어야 하고 또한 외국어로 쓰여진 논문의 경우에는 번역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 Excerpta Medica는 우리나라에서 발간되는 잡지로서 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대한의학회지)등 모두 11종의 국내의학잡지 논문들이 수록되고 있다.

- 1) J Korean Cancer Res Assoc
- 2) J Korean Med Assoc
- 3) J Korean Med Science
- 4) Korea Univ Med J
- 5) Korean J Biochem
- 6) Korean J Dermatol
- 7) Korean J Parasitol
- 8) Korean J Pharmacol
- 9) Korean J Physiol
- 10) Seoul J Med
- 11) Tuberc Respir Dis

3. Biological Abstracts

Biological Abstracts는 생명과학분야문헌의 조사

를 하는 이용자에게 유용한 검색지로 추천될 수 있는 광범위하고 다양한 또 하나의 다른 2차자료이다. 이는 Philadelphia에 있는 Bioscience Information Service(BIOSIS)에서 월 2회로 출판하고 있다. 이것은 좀더 망라적인 인용문헌(citation)을 검색하기 위해서도 사용될 수 있다. Section표목들은 해당 Section들의 위치를 찾는 데 도움을 줌은 물론, 주제안내는 계층적 분류에서 주제들의 일반적 조직을 나타내 준다. 검색을 보조하기 위한 5가지의 색인들이 있다. 즉 저자색인은 개인과 단체명과 더불어 해당초록번호를 주어 자모순으로 수록되어 있고 생물계통색인은 생물분류학적 범주에서 해당초록으로 안내하며, 각 범주내에서는 주요개념에 의하여 배열된다. 일반명색인은 屬一種(genus-species)명으로 검색하는데 사용되며, 여기에도 다시 주요개념들이 적용된다. 개념색인은 넓은 생물학적 주제 영역내에서 적합한 초록들을 찾는 데 사용된다. 마지막으로 주제색인은 표제 또는 본문에 나타난 단어로 부터 해당초록을 발견하는데 사용되며 이들 각각의 Keyword들은 중앙의 위치에 배열되며 그 외의 다른 주제어는 양쪽에 배열된다.

이 Biological Abstracts에도 우리나라에서 간행되는 의학잡지 19종이 수록되어 있다.

외과학회지, 부산의대잡지, 고려의대논문집, 중앙의대잡지, 중앙의학, 대한피부과학회잡지, 대한미생물학회지, 대한내과학회잡지, 기생충학잡지, 대한약리학회지, 최신의학, 서울의대학술지, 결핵 및 호흡기 질환, 연세의대논문집, Yonsei Medical Journal, Yonsei Reports on Tropical Medicine, Korean Journal of Biochemistry. 가톨릭대학 의학부 논문집.

4. Science Citation Index

Philadelphia의 The Institute for Science Information에서 출판하는 이 색인은 수많은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업무를 역으로 달성하게 하는 것으로, 즉 Science Citation Index는 다른것과는 반대로 그 당시로부터 앞으로 향하여 검색하여 초기의 연구들을 인용한 저자들을 찾아내는 것이다. 여러학문분야를 포함하는 이 색인은 1961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리고 잡지, 집회, 회의록, 연구저서를 대상으로 한다. 이는 또

한 서지를 작성하고 그 주제의 범위를 확장하는데 유용하며 문헌검색을 위해서 3가지로 구분된 즉 Source Index, Purmutation Subject Index, 그리고 Citation Index가 있는데, 검색방법은 서로 보완 내지 Combination관계를 유지하면서 완전한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다.

5. Current Contents

삼차자료라 기술할 수 있는 Currnt Contents는 시간차를 메워주는 목적을 갖고 있다. 이는 잡지호가 인쇄물에 수록되기 이전에 목차 page를 실어줌으로써 시간차를 메워줄뿐만 아니라, 도서관의 도움없이 이용자들이 잡지, 각호의 목차들을 볼 수 있게 하여준다. 이 Current Cantents는 Science citation Index와 같이 Institute for Science Information에서 출판한다. 이는 인문과학, 과학기술, 그리고 의학과 사회과학의 넓은 범위의 학분분야를 포함하고 7개 부분으로 출판된다. 임의의학 Section(Clinical Practice)은 의학기술자들에게 가장 유용한 것이며, 의학 연구자들에게 이용될 수 있는 다른 Section은 Life Sciences이다. 각 Section은 주간으로 출판되며 어떤 잡지의 목차들 특히 미국의 주간지들은 그 호 자체만큼이나 빨리 출판될 수도 있고 때로는 더 빠를 수도 있다.

6. 기 타

앞에서 설명한 2차자료들 외에도 개별 주제들에 대한 좁은 범위의 색인과 초록지들이 많이 있다.

a) Chemical Abstracts; American Chemical Society 1970~

b) Intestinal Absorption; Biomedical Information Service

c) Muscular Dystrophy Abstracts; The Muscular Dystrophy Association

d) Tropical Diseases Bulletin; The Bureau of Hygiene and Tropical Diseases

e) Bulletin of Hygiene; The Bureau of Hygiene and Tropical Diseases.

f) Ophthalmic Literature; The Institute of Ophthalmology

g) **Kidney Disease and Nephrology Index**; 미국 보건·교육·후생성

h) **Neurosurgical Biblio-Index**; National Library of Medicine

i) **Psychological Abstracts**;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j)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University Microfilm International

k) **Hospital Abstracts**; Department of Health and Social Security in England

l) **Abstracts of Health Care Management Studies**; Cooperative Information Center for Health Care Management Studies in Michigan University

m) **Hospital Literature Index**; American Hospital Association

7. 醫學雜誌의 卷末索引

외국의학잡지들은 거의 모두가 권말호에 **Index to Volume**을 게재하고 있다. 많은 종류의 잡지를 여기에 모두 소개할 수 없어 출판사별로 임의로 선정하여 어떠한 색인법을 사용하고 있는지 조사하였다.

a) **Journal of Urology**; KWIC 색인

b) **Americal Journal of Ob & Gy**; Keyword 색인

c) **Archives of Ophthalmology**; Keyword 색인

d) **Anesthesia**; KWIC 색인

e) **Acta Anatomica**; Keyword 색인

f) **Journal of Infectious Diseases**; KWIC 색인

g) **Ophthalmic Survey**; Keyword 색인

h) **American Journal of Otolaryngology**; KWIC 색인

i) **British Journal of Ob & Gy**; KWIC 색인

j) **European Journal of Pharmacology**; Keyword 색인

k) **JAMA**; 주제명색인(**Index Medicus**와 同一)

이상 발췌해본 상기 잡지는 **Author Index**와 **Subject Index**를 권말호에 모두 게재하고 있다. 각 전문주제잡지는 모두 **Keyword** 색인이나 **KWIC** 색인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의학전반에 걸쳐 수록되는 **JAMA**는

Index Medicus와 같은 주제명색인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좁은 영역의 주제는 **Keyword** 색인이나 **KWIC** 색인법이 이용에 더욱 편리하고 의학전반에 걸친 모든 분야를 색인하는 것은 역시 주제명색인법인 **Index Medicus** 사용법이 보다 용이하다고 보여지는 것이다.

국내 의학정보색인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적지 않은 색인자들이 간행되고 있지만 그것은 사회과학분야에 편중되어 있고 의학분야는 몇몇대학 및 분과학회에서 간행되는 극소수의 잡지들만이 연말호에 붙여서 색인 혹은 총색인을 발간하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그 색인들이 상호어떤 체계의 형성이나 조정활동이 없는 상황에서 한국의학도서관협의회, 연구소, 학술단체등이 각각 필요에 따라 산발적으로 간행 배포됨으로서 색인자들 사이에도 중복과 공백이 생겨나고 따라서 이용자들에게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혼란을 막고 비능률을 배제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서 이미 간행되었거나 계속 간행되고 있는 주요색인자들의 주제분야, 특집, 수록범위, 간행빈도, 이용가치등을 조사분석하고 의과대학논문집이나 학회지 권말색인에 대하여 고찰해 보고자 한다.

1. 정기간행물기사 색인

이 색인지는 국회도서관이 1945년 이후 우리나라에서 간행되는 학술잡지 및 정부기관에서 간행되는 각종 축차간행물을 총망라한 기사색인으로서 1965년부터 격월간으로 간행되며 편집 및 인쇄업무가 전산화된 1977년부터는 연간 누가합본이 간행되고 있다. 누가합본에도 매년 그해에 국내에서 발행된 학술잡지 및 정부기관 축차간행물 기사들이 모두 수록된다. 학술적 가치가 없는 문예작품, 현저르뽀, 통계등이나 학보등에 학부학생이 기고한 기사, 기타 참고자료로 별로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기사도 수록하지 아니하였다.

2. 의학·약학논문 총목록

우리나라에서 발행되는 잡지, 기관지, 학회지 및 대학의 논문집과 학보등 모든 정기간행물을 총망라한 국회도

서관편「국내간행물기사색인」 1945~1959, 한국도서관 협회편「학술잡지기사색인」 1960~1962, 국회도서관편「국내간행물기사색인」 1963~1968, 국회도서관편「정기간행물기사색인」 1969~1971년의 색인집에서「의학·약학」만을 따로 모아서 1945~1971년까지 27년분 약 30,000편을 누적한 것이다.

이 색인에서 매기사 논문의 기술방법은 저자명, 제목, 所在誌名, 권, 호, 면수, 연도순으로 하였고, 저자가 2인일때는 두사람 이름을 連記하였고, 3이상일때에는 제일 저자뒤에 “외”를 표시했으며 공저나 等著者에 대한 부출은 하지 아니하여 의학논문의 多數著者가 많은 특성을 살피지 못하고 있다. 또한 색인의 분류체계도「정기간행물 기사색인」의 의학·약학부문과 통일체제를 따름으로 인하여 불합리한 점이 많아 이용함에 있어 매우 불편하다. 부록으로 1945년부터 1971년 2월까지 우리나라에서 수여된 “의학 및 약학박사학위논문”을 수록하였다.

3. Index Medicus(Korea)

한국의과학연구소에서 1973년 연 2회로 발간한 색인지로 1974년까지 발간되고 1975년에는 1970년부터 1972년까지 3년간 50종의 국내의학잡지에 수록된 논문들을 Index medicus의 편집방법에 따라 누가합본색인 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에 계속 간행되지 않고 있으므로 폐간된 것으로 보인다.

4. Medical Abstracts, Korea

대한의학협회에서 1974년부터 연간으로 발행되고 있는 영문으로된 의학초록지이다. 1974년 52종의 잡지에서 논문을 선별하여 초록을 상세히 게재하며 시작된 이 Medical Abstracts, Korea는 현재 잡지의 수를 67종으로 늘리어 게재하고 있으며 의학분과별로 정리하였다. 기초의학과 임상의학을 분리하여 즉 해부학(101), 생리학(102), 생화학(103),...내과학(201), 소아과학(202),...등으로 각각 고유번호로 code화 하여 구분하였다. 권말에도 주제색인과 저자색인이 있어 문물을 참조하도록 하였으며 수록잡지명도 함께 게재하고 있다. 그러나 저자명의 경우 이름은 모두 약자를 사용하여 서로 다른 여러사람이 한곳에 배열되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5. Korean Medical Abstracts

한국산업경제기술연구원에서 1971년부터 계간으로 발행하는 영문초록지로서 대한의학협회에서 발행하는 Medical Abstracts, Korea와 유사한 방식으로 정리하였으며 수록잡지수는 82종이다.

6. 학술총람

학술원에서는 1966년부터 학술진흥정책의 일환으로 1901년 이후 우리나라 학자들의 연구업적을 담은 학술총람을 학문분야별로 연차적으로 편집 발간하여 왔으나 의학분야의 연구업적은 너무나 방대하고 해마다 그 질량이 급증하여 가는 형편에 있어서 편집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다가 1980년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해서 학술총람의 학편이 발간하게 되었다. 1901년부터 우리나라에서 발표된 국내외인의 의학에 관한 원저 및 Case Report로써 의학잡지에 수록되어 있는것을 대상으로한 초록집이다.

분류는 논문수가 막대하여 효과적인 검색이 가능하도록 Index Medicus의 MeSH에 의하여 분류하였고, 권말에는 저자색인을 저자의 성을 가나다 순으로 배열하였다. 하나의 논문이 여러개의 주제로 분류될때 모두게 제하지 않고 초록을 한 주제에 배열하고 그 초록번호를 일련번호로 주어 기타의 주제에서는 상관지시를 하였다. 잡지명의 영문약어는 Index Medicus의 약어 체제를 따랐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출판되고 있는 각분야의 초록집중에서 가장 방대하여, 주제명색인을 사용하고 있는 최초의 초록지로서 현재 1982년까지 모두 10집이 발간되었다. 그러나 이 초록집은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기에 국가적인 지원없이 발간이 불가능하며 자료의 시간적 지연이 너무 길어 이용율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7. Korean Index Medicus

의학분야에서 하나의 연구결과를 발표하는데 인용되는 자료의 빈도를 보면 평균 약 28편의 자료를 인용하고 있다. 이중 국내의 각 잡지에 발표된 논문을 인용하는 경우가 약 1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계속 증가추세에 있다. 그러나 국내문헌의 최신정보를 요구하는 이용자가

많아지고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학사서들의 애로점도 컸다. 이에 한국의학도서관협의회에서 Korean Index Medicus를 발간하기로 하였다. 당시 미비한 자료이긴 하나 1945년부터 1971년까지는 국회도서관편「의학·약학논문 총목록」이 있고, 1970년부터 1974년까지는 Index Medicus(Korea)가 이미 출판되었으며, 1981년까지는 학술총람 의학편이 있어서 검색에 도움이 되고 있었다.

그러나 최신정보를 제공하여 줄 2차자료가 없던 1982년부터 1983년까지의 92종의 잡지에서 8,864편의 논문을 대상으로 한 Korean Index Medicus를 1982년에 발간하였고, 1984~1985년분(107종) 10,024편의 논문을 1987년에 발간하였으며, 1986년분(115종) 5,684편의 논문을 1988년에 발간하여 시간적 지연을 없애고 노력하였다. 금년에는 1987~1988년분을 발간하여 최신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Korean Index Medicus는 국내에서 발간되는 모든 의학논문(중설은 제외)을 수록하고 있으며, 편집방침은 Index Medicus의 방식을 그대로 인용하였으므로 사서나 이용자가 이용하는데 큰 불편은 없으리라 믿는다. 그러나 Korean Index Medicus를 수작업으로 하고 있어 편집과정에 시일이 많이 소요되며, 더욱이 국내에서 발간되는 의학잡지가 의학교서관에 소장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있어 자료수집에 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세계적 색인작업의 단계별 발전상황을 볼때 아직까지 우리나라 의학정보색인사업은 1960년대의 색인발전 과정에 머무르고 있어 우리나라 의학과 정보전문가들이 연구하여 자동색인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겠다. 현재 수작업으로 Korean Index Medicus를 발행하면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어 이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학이나 분과학회 및 기관지에 게재되어 있는 논문들이 분류하는 과정에서 2重으로 게재될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 字句修正도 없이 저자들의 게재순서까지 동일한 논문이 1982년에 23편, 1983년에 54편, 1984년에 35편, 1985년에 58편, 1986년에도 33편이나 된다. 이는 우리나라 의학잡지의 수준을 그만큼 격하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며, 뿐만아니라 저자에 대한 양식에 문제도 된다. 또한 문헌검색자로 하여금 혼란만을 야기시키는 결

과를 가져올 수 있다. 한편 저자명의 영문표기에서도 동일인이 잡지마다 다르게 표기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색인작업시 원문에 사용된 서지사항을 그대로 인용하여 색인할 수밖에 없어 동일인이 어느 한편에는 가공인이 되기도 한다. 즉 A잡지에는 Chung으로 표기하고, B잡지에도 Jung으로 표기되어 혼란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姓뿐만이 아니고 이름의 표기도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밖에 정정기사도 없이 서지사항이 다르게 인쇄된 출판물도 있으며 Running Page를 사용하지 않는 잡지들이 많아 논문의 내용못지 않게 출판물 편집사항에도 신경을 써야겠다.

8. 기 타

별책으로 발행된 국내의학잡지색인들은 다음과 같다. 여기에서 권말부록으로 편집된 총색인지는 생략하였다.

- 1) 대한안과학회 총색인 ; KWIC색인
- 2) 가톨릭대학 의학부 총색인 ; 주제명 색인 (Index Medicus와 同一)
- 3) 대한이비인후과학회지 (두경부외과) 논문목록집 ; KWIC색인
- 4) 소아과총색인 ; 주제명 색인 (Index Medicus와 同一)
- 5) 서울의대 학술지 총색인 ; Excerpta Medica와 유사

9. 국내의학잡지의 권말색인

국내에서 발행되는 100종의 의학잡지를 대상으로하여 목차, 총목차, 색인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였다.

목차사항에서 3개 잡지가 영문목차가 없었고, 총목차는 21개만이 권말호에 게재하고 있을 뿐이다. 색인은 의국의 의학잡지는 거의 모두가 매호마다 색인이 있고 권호 말호는 해당권의 저자 및 주제색인이 누가되어 있으나 국내 의학잡지는 12개잡지만이 저자 및 주제색인을 부여해 주고 있다. 모든 잡지가 권말색인을 함으로써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해야겠다.

결 론

색인지와 문헌검색은 각각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 없으

며, 양자는 상호관련되어 정보검색 System의 기간을 형성하는 것이다. 문헌검색에 이용되지 아니한다면 색인은 전혀 무가치한 것이다. 어떤 문헌을 이용한 결과 다음에 어떤 문헌을 요구할 것인가 하는 물음에 답할 수 있다

면 우리는 현재의 정보유통체제를 더 효율적인 수준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문제의 핵심은 의학색인의 Network로 마련되는 모든 기존문헌에 대한 지적 접근수단을 개발하는 것이다.